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사 컴투스가 화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로 최근 대세로 급부상한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머너즈 워'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 컴투스

키우는 재미! 싸우는 재미! 모으는 재미!

컴투스 '서머너즈 워' 마법진 열렸다

개성만점 400여마리 몬스터 등장
룬 조합으로 취향 따라 육성 가능
풀3D 그래픽의 화려한 전투 압권
아레나에선 다른 유저들과 대결도

모바일게임 부문에 역할수행게임(RPG) 바람이 불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중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사 컴투스도 화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로 출사표를 던졌다. 17일 자체 게임 플랫폼 '컴투스 허브'를 통해 정식서비스 되는 '서머너즈 워'는 전투를 풀3D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각 캐릭터의 성장에 가치를 둔 육성 체계를 적용해 다른 몬스터 수집형 RPG와 차별화를 꾀했다.

●'룬'으로 몬스터 육성 재미 UP

'서머너즈 워'에는 나만의 공간 '천공의 섬'이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SNG)에서의 '마을' 개념이 아닌 몬스터를 더욱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육성 기지의 역할을 한다. 게임엔 400여 마리의 몬스터가 등장한다. 몬스터들은 별의 개수에 따라 1성부터 6성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또 주요 스킬 및 능력별로 공격형과 방어형, 체력형, 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략 전투를 펼칠 수 있다.

유저는 등급과 특성, 속성, 강화 방법 등을 통해 나만의 몬스터를 키우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 성장과 더불어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룬'의 존재가 재미를 더한다. 각 몬스터에 총 6개까지 장착 가능한 '룬'은 활력과 신속, 집중, 수호 등 10종이 있다. 1성부터 6성까지 6등급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종류의 '룬'을 2개 또는 4개 장착하면 고유 세트 효과가 추가 발동한다. 최대 3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세트효과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다. '룬'은 15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으며 3강과 6강, 9강, 12강 성공 시엔 보너스 옵션도 발생된다.

●다채로운 전투의 재미 만끽

'서머너즈 워'는 턴 방식 전투의 빠른 전환과 화려한 스킬 효과를 통해 역동적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유저는 각 던전에 출연하는 상대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능력과 스킬을 가진 몬스터를 선택해 수동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공격에 유리한 대상이 색상으로 표시되고, 자동 전투도 지원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서머너즈 워'엔 시나리오 전투로 구성된 기본 던전 외에도 고급 '룬'과 상위 몬스터 소환서, 진화 및 각성 재료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고난도 던전 '카이로스 던전'이 존재한다. 이곳에선 각성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마력 던전', 고급 '룬' 획득이 가능한 '거인 던전', 특정 시점에만 열리는 '요일 던전', 발견한 유저와 그 친구들만 입장할 수 있는 '비밀 던전', 예고 없이 오픈 되는 '게릴라 던전' 등 총 20여 종의 다채로운 전투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매달 꾸준한 업데이트 약속

다른 유저들과 겨루는 개인 간 전투(PvP) '아레나'도 '서머너즈 워'의 핵심 콘텐츠. 유저는 4마리의 최정예 몬스터로 대전을 펼치는 '아레나'를 통해 매주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된다. 승점별로 분류되는 계급에 따라 매주 보상이 지급되며, 승리 시 얻게 되는 명예 포인트를 사용하면 상점에서 몬스터 소환서를 구매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물을 건설할 수도 있다. 컴투스는 게임 출시 후에도 매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컴투스 '서머너즈 워' 플레이 장면

국산차 '국부정면충돌실험' 말리부·아반떼 우수

정면 운전석 쪽 25% 충돌 가정 테스트
K7·싼타페 '양호' SM5·올란도 '미흡'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13년식 국산 자동차 6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부정면충돌실험' 결과 쉐보레 말리부와 현대차 아반떼 2개 차종만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테스트는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며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던 예비충돌실험 결과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16일 "직원의 실수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잠시 공개됐다가 지금은 내린 상태다. 차종과 등급을 무작위로 선택해 진행한 예비충돌실험이기는 하지만 실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부정면충돌실험은 차량 정면 운전석 쪽 25%를 충돌한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는 2012년부터 이 테스트를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추가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됐다.

대상 차종은 쉐보레 말리부, 기아자동차 K7, 르노삼성 SM5, 현대자동차 싼타페, 쉐보레 올란도,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총 6개 차종이었다.

이 가운데 쉐보레 말리부와 현대차 아반떼는 '우수'에 해당하는 G등급을 받았고, 기아차 K7과 현대차 싼타페는 '양호'에 해당하는 A등급을, 르노삼성의 SM5와 쉐보레 올란도는 '미흡'에 해당하는 M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열등'에 해당하는 P등급을 받은 차는 없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전반적으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탑승자 공간 아래쪽의 변형에서 감점을 받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총점은 '우수' 등급.

쉐보레의 중형세단 말리부는 탑승자 공간 변형 등급에서 '양호'를 받았지만 측면 에어백 전개가 제한되며 1점 감점을 받았다. 총점은 역시 '우수' 등급.

기아자동차 K7은 측면 에어백의 전개가 제한되면서 2점 감점을 받았고, 탑승자 공간 아래쪽 변형으로 감점되며 종합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 말리부



아반떼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는 측면 에어백 전개가 제한되면서 2점 감점을 받았고, 차체 구조에서 탑승자 공간 아래쪽의 변형으로 인해 6점을 더 감점 받아 총점은 '양호'에 그쳤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세단 SM5는 측면 에어백 전개가 제한되며 2점 감점을 받았고, 탑승자 공간 아래쪽에서 변형이 일어나며 6점 감점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총점은 '미흡'.

쉐보레의 MPV 올란도 역시 에어백의 작동상태 등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탑승자 공간의 변형이 커 부분적으로 '미흡'과 '열등' 등급을 받았고, 총점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농협생명, 고객정보 35만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

금감원, 개인노트북에 개인정보 저장 확인

농협생명 고객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농협생명 경영실태평가 현장점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주업체의 직원들이 개인노트북에 약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해 둔 것을 확인했다는 농협생명의 내부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농협생명이 지난 1월 자체점검기간 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생명은 "해당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정보를 테스트용으로 변환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했다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신용카드 가입 시 약관 단 한장…이해 더 쉬워진다

핵심설명서 제도 6월부터 시행

6월부터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핵심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해 모집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데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도 어려워 쉽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6월부터 카드사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넣어야 한다. 또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용지색상도 노란색, 글자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문구를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등 동의절차도 강화했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면 소비자와 모집인은 핵심설명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편 '핵심설명서' 제도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모집인 교육 등을 마친 뒤 6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어린이집도 프랜차이즈 시대 "빅스맘에 믿고 맡겨요"

프로그램 지원…교사들 보육에 집중
어린이집 내부 환경과 안전에도 심혈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사건 등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어린이집 브랜드 '빅스맘'이 화제다.

빅스맘은 원장과 교사들이 보육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개념 프랜차이즈 어린이집이다. 특히 교육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을 강조하고, 국가 표준보육과정에 자존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중지능이론과 몬테소리과정을 기반으로 발달상황에 맞춰 도입한 영·유아 단계별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빅스맘 아로마 키즈케어 프로그램'과 '빅스맘 페스티벌'도 제공한다. 검증된 가방과 도시락 등은 물론 유러피안 스타일의 다양한 색을 활용한 공간 등 환경과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교육프로그램 자료, 마케팅 등 운영 업무를 지원해 원장과 교사들이 최대한 보육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빅스맘의 장점이다. 빅스맘 김승일 대표는 "빅스맘은 체계적 교육 시스템과 검증된 보육시설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개념 어린이집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경제 브리핑

하나투어, 5월 황금연휴 '빈자리 상품' 출시

하나투어가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아직까지 여행계획을 세우지 못한 여행객을 위해 빈자리 상품을 내놓았다. 하나투어가 추천하는 황금연휴 대표 빈자리 상품은 5월1일 출발하는 '중국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 상품이다. 중국의 4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대소석림과 구향동굴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가격은 64만9000원. 2일 출발하는 '싱가포르·바탐 5일' 상품은 센토사섬과 주룽새공원 등 싱가포르 관광과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129만9000원. 3일 출발 예정인 '대만 3박5일' 상품은 야류해공원, 지우펀거리 자유시간, 온천욕 등의 일정으로 79만9000원(유류할증료 등 불포함)에 판매한다.

대한항공, 이르쿠츠크 정기 운항 재개

대한항공은 5월부터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는 이르쿠츠크 정기 운항을 재개한다. 5월 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 2회(월·금) 운항하며 159석 규모의 B737-900ER 기종을 투입한다. 출발편은 오후 8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5분 이르쿠츠크 공항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편은 오전 3시15분 이르쿠츠크 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6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삼성 기어2 '갤럭시 시리즈' 16종과 연동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2'와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이 국내 출시된 16종의 갤럭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선보인 '갤럭시S5'를 비롯해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13종과 '갤럭시노트 프로 12.2' 등 태블릿PC 3종이다. 삼성앱스를 통해 각각 기어 매니저와 기어 핏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기존 갤럭시 스마트 기기와 삼성 기어 시리즈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남양유업, 중국 우유 시장 진출

남양유업이 중국 우유 시장에 진출한다. 남양유업은 9일 1리터들이 제품 1만8000개를 중국에 수출했다. 앞으로 매주 비슷한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 제품은 유통기한 15일의 신선제품이다. 남양유업은 냉장 컨테이너와 고속 훼리선, 냉장 탑차를 이용해 생산 후 5일 이내에 현지 매장에 진열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제품은 저장성을 개선한 PET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남양유업만의 특허 기술인 GT공법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KGC인삼공사 '아동 성폭력·유괴 예방' 교육

KGC인삼공사는 16일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 및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관장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김성령이 일일 교사로 참여했다. KGC인삼공사는 연간 약 4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굿네이버스 아동 성폭력·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과 전문가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